

#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 고찰\*

신지연(목원대) · 변승구(목원대)

## < 목 차 >

- |                  |                  |
|------------------|------------------|
| 1. 序言            | 3. 개화기 가사의 작자 유형 |
| 2. 개화기 가사의 작자 분석 | 4. 結語            |

## 1. 序言

한국사회는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화기를 맞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개화기<sup>1)</sup>라 명명한다. 한국사의 격변기라 할 수 있는 개화기는 근대에서 현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 시기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과도기적 특성에서 말미암은 혼란스러운 문학적 정체성으로 인해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사실 전대의 고전문학을 부정하며 탈피하고자 했던 개화기 문학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환골탈태에 실패하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할 만한 문학적 역량이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당시의 환경에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KRF-2009-32A-A00089)에 의한 것임.

1) 이 시기의 명칭에는 애국계몽기·개항기·근대화시기·계몽기·우국저항기·근대전환기·애국계몽기·우국계몽기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개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대성을 지향했던 개화기 문학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측면을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문학적 특성과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들어 개화기 문학이 지니는 변별적 특성에 주목한 논의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 시대의 문학을 논의하는 데는 우선 시기의 설정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화기의 시기설정에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시기구분<sup>2)</sup>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개화기는 문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였는데 산문문학은 고전소설의 전통적 형식과 내용에서 벗어나 근대적 성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시가문학도 기본적인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전대와 다른 경향으로 바뀌어 갔다.

개화기를 대표하는 시가문학은 가사<sup>3)</sup>라 할 수 있다. 가사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 전반을 향유하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장르적 변화를 보였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4·4조의 운율이 유지되었으나 형태상 산문화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전통가사의 충·효나 인륜의 윤리적인 내용과는 달리 시대의식을 반영한 자주독립이나 우국계몽 등의 개화의식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가사는 당대의 문화나 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르라 하겠다.

그러나 개화기 가사의 작자 및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개화기에 발표된 신문·잡지의 작품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개화기 가사의 총체적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sup>4)</sup> 또한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

2) 개화기의 시기 설정에 있어서 배희임(1990)은 1880년~1910년, 정승철은 1890년~1910년, 이응호(1975)는 1894년~1910년, 김상태(1993)는 1894년~1917년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토대로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1876년 전후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 유명씨와 무명씨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3) 이 시기 대표적인 시가로 시조를 들 수 있으나 양적으로 시조는 『大韓每日申報』와 『大韓民報』를 비롯한 신문·잡지에 발표된 작품수가 800여 편으로 가사에 비하여 절만 정도이며 내용적으로도 가사에 비하여 시대의식이나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논문의 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이다.

연구도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논의<sup>5)</sup>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개화기 가사의 자료<sup>6)</sup>를 토대로 작자층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수집된 가사의 작자를 일람하고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有名氏는 물론 필명이나 아명으로 표기된 작자층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성격을 밝혀 작자층의 유형을 확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개화기 가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4) 강은해, 「개화기가사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79.  
 김학동, 「개화기의 가사」,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남재희,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의 현실인식」, 영남대 석사논문, 2000.  
 서 별, 「애국가집-〈독립신문〉, 개화가사」, 『현대시학』 88, 현대시학사, 1976.  
 유연석, 「개화후기 가사문학 고찰」, 『논문집』 9집, 순천대, 1990.  
 유정선, 「대한매일신보 소재 가사문학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윤상용, 개화기의 시가 연구: 독립신문 시가와 「대한매일신보 시가를 중심으로」 서원대, 석사논문 2001.  
 장성남, 「대한매일신보 시가의 존재양상과 주제표출 방식」, 대전대 박사논문, 2004.  
 조동일, 「개화기가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 4, 계명대, 1970.  
 조현경, 「大韓每日申報 所載 歌辭 研究」, 全南大 教育碩士, 1995.  
 최한선, 「개화기가사의 장르복합고」, 『목원어문학』 5,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5.
- 5) 이러한 논의로는 윤상용(2001), 개화기 시가 연구 서원대 교육석사 논문에서 ‘언론 계층’, ‘유학생 계층’, ‘개화 서민 계층’, ‘전문 창작계층’, ‘이민계층’으로 김영철(1986)의 한국 개화기 시가 장르의 형성과정 연구(서울대 박사논문)에서는 ‘저널리스트 계층’, ‘유학생 계층’, ‘일반 개화서민 계층’, ‘이민계층’으로 문성숙(1985)은 開化期의 文學擔當階層(『국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회)에서 ‘개신유학 계층’, ‘의병운동 계층’, ‘해외유학 계층’, ‘개화서민 계층’, ‘저널리스트 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
- 6) 이 논문에서는 개화기 가사의 작품수를 143수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는 신문·잡지만만 아니라 필사본이나 개인 문집까지 개화기에 발표된 가사는 총망라 되었다.(신지연 외, 「개화기 가사 자료의 현황과 의미」, 『어문연구』 64집, 어문연구학회, 2010)

## 2. 개화기 가사의 작자 분석

개화기와 더불어 많은 신문·잡지가 발간되었는데, 이들은 대개의 경우 문예란을 두어 국문학을 소개하고 독자투고제, 현상문예제를 통하여 신문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중추역할을 하였다.<sup>7)</sup> 이러한 고정란을 통해 발표된 시가는 한시, 시조, 가사 등 고전시가의 대부분의 유형을 망라하였으나, 그 중 무엇보다도 가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투고자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문인이라는 점과 내용의 부담감 등으로 작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기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작자층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신문·잡지에 기재된 인물들을 중심으로만 연구되어 개화기 작자층에 대한 전반적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 가사는 새로운 인쇄매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사수록 방식인 개인 필사본이나 문집의 형태로도 꾸준히 창작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에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외에 기존 가사수록 방식까지 검토하여 작자층을 총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개화기 有名氏 작자를 일람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화기 有名氏 작자 일람표

번호	작자명	연 대	작품명	작품수	출 전
1	姜一淳	20C전후	受納終成歌	1	東學入門(洪)
2	康洪斗	1907	就業進步詞	1	『大韓每日申報』 <sup>8)</sup> 2.12
3	鏡虛惺牛	20C전후	法門曲, 可歌可吟, 參禪曲	3	연활자본 『鏡虛集』
4	權光範	20C전후	隴西別曲	1	필사본
5	權相老	20C전후	涅槃歌	1	활자 『釋門儀範』
6	金景欽	20C전후	不孝歌警心歌	2	『城隱集』卷之二

7) 김영철, 『한국근대시론고』, 형성출판사, 1989.

7	金起浩	1899	聖堂歌	1	사목 39호
8	金大洛	20C전후	憤痛歌	1	『白下日錄』下卷
9	金洛耆	1895	春遊曲	1	석판본
10	金相鉉	1908	愛國勸學歌	1	『경향신문』 12. 29
11	金湘堦	1909	每日報贊頌歌	1	『大每』 2. 3
12	金湘堦	20C전후	農夫歌	4	『西友』
13	金永相	20C전후	金陵世德敦睦歌	1	필사본
14	金有錫	20C전후	西友師範學校學徒歌	1	『西友』
15	金周熙	20C전후	信心誠敬歌	1	『동학가사 I · II』
16	金兌權	1909	讚賀大韓每日申報	1	『大每』 4. 18.
17	金漢弘	1908	西遊歌	1	『海遊歌』
18	金鉉中	20C전후	花柳歌	1	『痴庵集』
19	琴分	1908	歌曲改良의 意見	1	『大每』 4. 10.
20	金花脚	1909	勸告愛讀	1	『大每』 3. 18.
21	김경지	1907	일심가	1	『大每』 5호
22	김교익	1896	無題	1	『독립신문』 6. 2
23	김기범	1896	경축가	1	『독립신문』 9. 17
24	김석하	1896	독립문가	1	『독립신문』 7. 16
25	김시랄노	1909	文明遊覽歌	1	『大每』 9. 24
26	김요셉	1909	警世歌	1	『경향신문』 4. 15
27	김익호	1909	賞春歌	1	『大每』 5. 7
28	김정태	1908	신세를탄식하는노래	1	『경향신문』 11. 27
29	김종섭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9. 5
30	김종슈	1908	秋夜鄉懷	1	『공립신보』 10. 21
31	김창준	1910	相愛歌	1	『大每』 5. 13
32	김철영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9. 15
33	남상은	1909 1910	愛國勸學歌 四末歌	2	『京鄉新聞』 1. 8 『남마두 가첩』

34	노웰나 번역	20C전후	구주탄일찬미	1	『대한회보』
35	니필균	1896	애국하는 노래	1	『독립신문』 5. 9
36	東化竺典	1908	권왕가	1	필사본
37	柳錫用	1909	警世歌	1	『大每』 3. 9
38	류언형	20C전후	三綱五倫歌	1	『朗誦歌辭集』
39	류영준	1908	너자지남찬송	1	『大每』 345호
40	柳春馨	20C전후	祝辭	1	『西北學會 月報』
41	리동신	1907	일본단지학성의연모집문 일본단지학성의연모집문	2	『大每』 3. 31 『大每』 4. 6
42	리영언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9. 10
43	리용근	1907	진보가	1	『大每』 134호
44	李容植	1885	銅店別曲	1	『조선고전문학선집 (10)—가사집』
45	리용우	1896	무제	1	『독립신문』 7. 7
46	리용익	1908	무제	1	『경향신문』 11. 6
47	리우혜	1907	일심가	1	『大每』 106호
48	리중민	1908	得意天地	1	『大每』 2. 29
49	리중원	1896	동심가	1	『독립신문』 5. 26
50	리창성	1908	학도가	1	『大每』 181호
51	리치웅	1896	무제	1	『독립신문』 6. 14
52	리태호	1909	警世鍾和答	1	『경향신문』 6. 25
53	滿空月面	20C전후	산에 들어가 중이 되는 法 參禪을 배워 精進하는 法	2	활자본 『滿空法語』
54	明見子	1910	小盜大盜	1	『大每』 4. 27.
55	문경호	1896	무제 자주 독립가	2	『독립신문』 9. 14 『독립신문』 8. 20
56	文在穆	1908	和九曲歌	1	『大每』 2. 11
57	민극가	1885	三世大義	1	『시복자료』 本

58	민영호	1896	回心歌	1	『관동창의록』
59	박기림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8. 1
60	朴奉赫	20C전후	戒蒙歌 箕城歌	2	柳在泳 소장 『永言傳』
61	박시옹	1906	鬱島仙境歌	1	『鬱島仙境歌』
62	박양원	1908	和九曲棹歌 腹空歎	2	『大每』 2. 11 『大每』 3. 29
63	박영신	1907	언문신보를치하흠	1	『大每』 3호
64	朴永鎭	1907	謹賀國文申報發刊 除夜恭頌每日報	2	『大每』 5. 26 『大每』 12. 31
65	박요안	1910	明道講習讚頌歌	1	『경향신문』 6. 10
66	朴定陽	20C전후	曝曬日記	1	『朴定陽全集』
67	박정노	1910	충친척사가	1	필사본
68	박준호	1910	警世歌	1	『경향신문』 4. 15.
69	朴重彬	20C전후	甌盤世界歌 嘆息歌	2	『대종사가사집』 『회보(會報)』 62호
70	박성근	1903	廣州朴生寄書	9	『데국신문』 4. 15. 16. 17. 18.
71	裴淵德	1907	爲國效忠歌	1	『大每』 2. 10
72	백선호	1896	餞別歌	1	『餞別歌 孝行錄』
73	邊熙駿	1909	鷄鳴歌	1	『대한홍학보』 3.20
74	서제양	1909	愛國勸學歌	1	『경향신문』 1. 1
75	徐采	1909	棹歌一聞, 道歌, 事人如 天歌	3	韓末憂國警世歌(活)
76	宋聲淳	1907	無題 痛哭警告歌	2	『大每』 3. 9 『大每』 39호
77	宋旭鉉	20C전후	悲秋詞	1	『대한자강회월보』
78	新島玉	1909	弔壹進	1	『大每』 3. 18
79	신영태	1896	성절송축가	1	『독립신문』 9. 3
80	申在孝	20C전후	烏蟾歌	1	『申氏家藏本』

81	申采浩	1907	招魂歌	1	『大每』 12. 17
82	申泰植	20C전후	江山遍踏歌	1	필사본
83	오지환	1909	警世鍾	1	『경향신문』 6. 25
84	龍城震鍾	20C전후	勸世歌 世界起始歌 衆生起始歌 衆生相續歌	4	『용성대종사전집』, 제집 활자본 『龍城禪師語錄』(1941)
85	禹德淳	1910	無題	1	『大每』 2. 18
86	俞星溶	1906	萬歲報祝詞	1	『만세보』 6. 28
87	유요왕	1891	사양가	1	유요왕 가집
88	柳寅睦	20C전후	北行歌	1	필사본 『북행가
89	柳重教	1885	女孫訓辭	1	省齋集
90	柳春馨	1908	祝辭	1	『西北學會月報』
91	유홍식	1896	起曉喻之端	23 <sup>9)</sup>	『畏堂先生三世錄』
92	윤근선	1909	無題	1	『大每』 2. 13
93	尹定夏	1906	일본유학가	1	留學實記
94	윤철규	1898	새군가	1	『독립신문』 11. ?
95	윤태성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8.18
96	尹熙順	20C전후	방어중	8 <sup>10)</sup>	家庭錄(필사본) 『畏堂先生三世錄』
97	李□一	20C전후	自強會報歌	1	『대한자강회월보』
98	李建昇	1907 1907 1907 1908 1908	권효가 啓明義塾歌 啓明義塾創立紀念歌 和九曲歌 水火相連歌	5	金氏誠女詞 필사본 필사본 대한매일신보 2. 7 용천검 28호
99	이관영	1909	入山落髮歌	1	『大每』 4. 6
100	李光洙	1910	獄中豪傑	1	『대한홍학보』 9호
101	李貴子	1895	江陵花煎歌	1	필사본
102	李奎滢	1909	贊歌	1	『태극학보』 제5호

103	李基遠	20C전후	農家月令	1	필사본
104	李斗靛	1907	忠竹歌	1	『大每』 3. 5
105	이문우	20C전후	獄中提醒	1	필사본
106	이생원	1903	避惡修善歌	1	최시문소장필사본
107	李錫庸	20C전후	檄衆歌	1	倡義日錄
108	이승만	20C전후	고목가	1	『협성회회보』
109	李承鉉	20C전후	除夕漫筆	1	『태극학보』第七号
110	李咨穆	1898	善惡歌	17 <sup>11)</sup>	필사본 『白石謾成歌』 (조선 고종때)
111	李雨	20C전후	報德歌 恨別曲	2	『운보가사집』
112	이은구	1909	愛國歌	1	『경향신문』 5. 14
113	李鍾應	20C전후	西槎錄	1	필사본
114	李峻永	1902	晋州妓生離別曲	1	필사본
115	李中銓	1876	長恨歌	1	『愚谷集』
116	李晋用 濃雲	1897 1902	근경가 낙치가	2	『濃雲遺稿』 4
117	李晋用	1896	奚慶歌	1	雅樂部歌集
118	李泰一	1908	吾道歌 太平策	2	明菴文集 친필본
119	李台植	1902	大日本遊覽歌	1	『디일본유람가』
120	인응선	1897	애국가	1	『독립신문』 1.30
121	張啓澤	1906 1908	忠告歌 愁心歌	2	『태극학보』 창간호 『태극학보』 20호
122	張鶴臯	1910	歷代 醉夢歌	1	필사본
123	전경태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5. 19
124	全垂鏞	20C전후	檄歌	1	陣中日記
125	鄭秀元	1908 1908 1907	警告壹幅 勸勉歌 개명가	3	『大每』 9. 5 『大每』 3. 10 『大每』 376호

126	정우혜	1907	회춘가	1	『大每』 107호
127	鄭在洪	1907	思想八變歌 生辱死榮歌 追托書	3	『大每』 7. 2
128	鄭春一	1908	愛世十歎	1	『大每』 4. 4
129	鄭海鼎	20C전후	憫農歌, 石村別曲	2	필사본
130	전호련	1908	소년진보가	1	『공립신보』 11. 18
131	趙胤熙	1894	關東新曲	1	필사본
132	조호식	20C전후	金鍼歌	1	조호식본 필사본
133	趙熙百	1875	渡海歌	1	『關東壯遊歌』
134	조희일	1875	함라별곡	1	『관동장유가』
135	蔡龜淵	20C전후	蔡宦再謫歌	1	필사본
136	蔡東濟	20C전후	太極學會讚祝歌	1	『태극학보』
137	최기현	1907	국문신보구랍권고가 시스분탄가	2	『大每』 10호 『태극학보』 13호
138	최돈성	1896	서울순청글최돈성의글	1	『독립신문』 4. 11
139	崔鳴煥	1908	어서밭비도라오세	1	『大韓學會 月報』
140	최병헌	1896	독립가	1	『독립신문』 10. 3
141	최병희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9. 1
142	崔松雪堂	20C전후	盆竹	49 <sup>12)</sup>	『송설당문집』
143	최영구	1896	애국 독립가	1	『독립신문』 9. 8
144	최정현	1908	경고재정가	1	『大每』 410
145	최종선	1909	聖義學校	1	『경향신문』 9. 17
146	表振摸	1906	奮起어다우리同胞青年	1	『태극학보』 장간호
147	鶴鳴啓宗	20C전후	望月歌 禪園曲 涅槃歌 圓寂歌 解脫曲	5	『불교』 69호 『一光』 2호(1929) 『불교』 63호 활자본 『釋門儀範』 『불교』 64호
148	한명원	1896	미상	1	『독립신문』 7. 4

149	韓興教	1908	愛國歌	1	『大韓學會月報』
150	허일	1896	미상	1	『독립신문』 6. 2
151	현동녕	1908	農和農歌	1	『경향신문』 10. 9
152	洪방지거	1903	聖堂歌	1	『홍방지거의가집』
153	洪淳學	20C전후	丙寅燕行歌	1	필사본 『년헝가』
154	高萬種, 김泰源 等	1907	無題	1	『大每』 3. 6
155	리병德, 김인 化 등	1907	국債報상歌	1	『大每』 4. 14
156	美洞 仁義禮 智家 成樂允 ·李敦和 ·禹範振	1905	歌亦悲壯1 歌亦悲壯2 歌亦悲壯3 歌亦悲壯4	4	『大每』 9. 30 『大每』 10. 1 『大每』 10. 3 『大每』 10. 4
157	유봉슈 외	1906	木浦民政	1	『제국신문』
합 계				299	`

8) 『大韓每日申報』는 이후 『大每』로 약칭함.

9) <論咸罰之格> · <論禍變之作> · <論昏黑無分> · <望悔心之萌> · <明學義之端> · <明學義之事> · <明國朝世德> · <明君臣之義> · <明死生利害> · <明削髮之變> · <明上心> · <明倭酋心跡> · <明接戰之端> · <明處變之義> · <明天意> · <明天人一理> · <明彼類奸譎> · <明禍變之漸> · <明化育之恩> · <喻義兵之擊兵丁> <告兵丁歌詞>.

10) <병정노리> · <병정마> · <신신티령> · <으병군마> · <은스름 으병마 노리> · <익 들픈 노리> · <춘실가>.

11) <老鰥歌> · <歎人歌> · <多情花歌> · <悲愴歌> · <戀戀歌> · <願藥歌> · <遜世歌> · <自笑歌> · <眼昏歎> · <漁父歌> · <愚稚歌> · <절누가> · <春夢歌> · <歎俗歌> · <處士歌> · <春風歌>.

12) <述志> <自述> <葛峴省墓> <感恩> <覲親> <農者大本> <屢代先墓奉審及立石記事> <松雲洞運石> <金陵風景> <金海懷古> <松亭感懷> <藥水洞> <靑岩寺> <追感> <漢陽城中遊覽> <感懷> <遣悶> <菊花> <冬之夜> <蘭草> <明月> <牧丹花> <舞鶴山省墓> <無窮花> <發還京第> <白雪> <白峴及鳳鶴山省墓> <鳳仙花> <敍懷> <石榴> <先墓立石經營> <水仙花> <蟋蟀> <永導寺賞蓮花> <偶吟> <自感> <重陽> <蒼松> <靑葡萄> <秋夜感懷> <春風憶鄉園> <歎落葉> <芭蕉> <寒蟬> <海棠花> <向日

위 표는 개화기에 발표된 유명씨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총 작가는 157명이고 작품 수는 299수이며 전체 1443수의 21%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유명씨는 최송설당으로 49수이며 다음으로 유홍석의 23수가 확인된다.

출처별로는 신문자료 중에는 『대한매일신보』에 52수로 가장 많이 실려 있으며 다음은 『독립신문』 25수, 『경향신문』 12수, 『제국신문』 11수 순이며 잡지로는 『태극학보』 8수, 『大韓學會 月報』 2수, 『西友』 2수, 『대한홍학보』 2수 『西北學會 月報』 2수가 있다. 기타 개인 필사본 및 문집에 100여수가 있다.

연대별로는 1900년대 이전에 80수가 있으며 1901년부터 1910년에 171수, 20C 전후작<sup>13)</sup>에 113수이다. 구체적 연대로는 1896년이 49수로 가장 많다.

유명씨 작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식인 계층이 많다는 점이다. 개인 필사본 및 가집을 남긴 인물들은 대부분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대표적인 지식인 계층을 열거하면, 權光範·金景欽·金永相·金漢弘·金鉉中·남상은·朴奉赫·박시옹·박정노·백선호·申泰植·유홍석·尹定夏·尹熙順·李建昇·李貴子·李基遠·이문우·이생원·李容穆·李雨·李鍾應·李峻永·李晋用·李泰一·李台植·全垂鏞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둘째는 국가의 주요 관직을 맡았던 관료들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前渭原郡守였던 李觀榮과 주사였던 이필균과 최병헌 그리고 ‘북서 순검 윤태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866년 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장편의 紀行歌辭를 쓴 洪淳學, 대한제국 영사관 서기로 일했던 河山 金漢弘을 들 수 있다. 셋째, 종교계의 인물로는 동학의 김주희와 姜一淳, 원불교의 박중빈, 불교로는 鏡虛惺牛·東化竺典·滿空月面·龍城震鍾·鶴鳴啓宗 등을 들 수 있고, 기독교의 김시릴노와 김요셉, 천주교의 洪방지거와 金起浩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언론인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大韓每日申報』의 申采浩와 『경향신문』의 현동녕 등이 있으며, 잡지로는 『西友』의 金有錫, 『태극학보』의 表振摸, 『西北學會月報』의 柳春馨, 『협성회회보』 이승만

花><紅梅><喜雨>.

13) 20C 전후 작품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나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포함하였다.

14) 지식인 계층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인물사건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의병 계층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홍석과 민영호가 있다. 여섯째는 국내 학생 계층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배재학당의 문경호, 최영구, 평양학당의 김종섭 등이 있다. 일곱째는 유학생(留學生) 계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해외 신문·잡지에 실린 작자와 작품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해외 신문·잡지로 1905년 11월 22일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공립신보』를 비롯하여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태극학보』와 『대한홍학보』 등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공립신보』에 실린 김종수와 전호련, 『大韓學會 月報』에 崔鳴煥와 표진모 그리고 『留學實記』에 실린 尹定夏의 <일본유학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신문·잡지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자층이 유학생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實名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경우는 아명이나 필명 또는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작자를 표기하고 있다. 작자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분류를 위해 국내 신문·잡지와 기타 문헌에 실린 무명씨 그리고 국외 신문·잡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2> 국내 신문·잡지 및 기타 문헌에 실린 무명씨 작자 일람

번호	표기명	연대	작품명	작품수	출전
1	覺世生	1909	破眠壹閤	1	『大每』 3. 16
2	感春生	1910	賞春	1	『大每』 4. 19
3	懔憂生	1905	警告同胞文1 警告同胞文2	2	『大每』 12. 10 『大每』 12. 12
4	警世生	1905	歡鳥啄尸歌	1	『大每』 12. 22
5	警世生	1905	歡鳥啄尸歌	1	『大每』 12. 22
6	경축생	1910	乾元節	1	『大每』 3. 25
7	鼓吹生	1909	警告青年	1	『大每』 9. 23
8	公言生	1909	東窓漫錄	1	『大每』 3. 9
9	公六	1910	봄마지	1	『소년』 16권 4. 15.
10	教育者	1907	學生歌	1	『대한자강회월보』

11	瞿瞿生	1905	鷄既鳴矣 有所思	2	『大每』 10. 22 『大每』 11. 7
12	괴일 목사	1901	심기선성	1	『그리스도신문』
13	南山樵夫	1909	夜月彈琴	1	『大每』 3. 13
14	奈何生	1909	責賈誼	1	『大每』 1. 14
15	奈何生	1909	責賈誼	1	『大每』 1. 14
16	檀雲生	1909	祝每日報 何其長夢	2	『大每』 9. 21 『大每』 9. 26
17	대명산인	1908	斜陽悲歌	1	『大每』 3. 28
18	待楓子	1909	堅忍之功	1	『大每』 8. 6
19	大韓生	1909	乞巧文 把劍贈君	2	『大每』 8. 22 『大每』 8. 12
20	東洋生	1909	讀史有感	1	『大每』 3. 2
21	東俠子	1909	擊劍歌	1	『大每』 8. 1
22	幕松居士	1906	啞願歌	1	『大每』 5. 6
23	賣國大臣	1905	賣國慶祝歌	1	『大每』 12. 1
24	민목스	1901	찬미 찬미	2	『그리스도신문』 8. 8 『그리스도신문』 8. 29
25	畔世少年	1908	農夫歌	1	『西北學會月報』
26	反笑生	1910	特色文明	1	『大每』 3. 8
27	屏門長席生	1905	명충	1	『大每』 12. 5
28	步虛子	1905	秋風感歌	1	『大每』 11. 2
29	不屈生	1909	大呼英雄	1	『大每』 3. 17
30	不欺生	1909	世界公眼	1	『大每』 3. 23
31	북악산인	1910	楚水吳山 楚水吳山 楚水吳山 楚水吳山	4	『大每』 3. 22 『大每』 3. 24 『大每』 3. 25 『大每』 3. 26
32	悲世子	1909	依賴是病	1	『大每』 6. 24
33	飛行客	1910	世界漫遊	1	『大每』 2. 27

34	桑港留學生	1906	送舊迎新歌	1	『大每』 1. 21
35	성진구목스	20C전후	교회찬미	1	『그리스도신문』
36	슈은거스	1908 1910	春風八曲 春風八曲	2	『大每』 3. 24 『大每』 2. 13
37	尋芳客	1910	四子言志	1	『大每』 4. 17.
38	心香生	1909	紀念日祝賀 社稷祭	2	『大每』 8. 27 『大每』 9. 16
39	啞笑子	1909	鸚鵡人物 團合爲上 魍魎世界	3	『大每』 11. 28 『大每』 12. 1 『大每』 12. 8
40	啞俗生	1909	勸酒歌 蠅鼠相詰 打租歌	3	『大每』 12. 21 『大每』 10. 23 『大每』 10. 19
41	裴洋子	20C전후	興타령 한마디하 여보자	1	『대한자강회월보』
42	愛國生	1909	勸少年 찬愛國歌, 希望歌	3	『大每』 2. 14 『대한자강회월보』 『대한자강회월보』
43	愛月生	1909	賞月書感	1	『大每』 8. 31
44	양성군수	1908	勸農歌	1	『大每』 8. 4.
45	艷娘子	1909	女界悖風	1	『大每』 8. 17
46	玉山生	1910	英雄演說會	1	『大每』 2. 17
47	우시성	1905	향곡담화 향곡담화 향곡담화 향곡담화	4	『大每』 10. 29 『大每』 10. 31 『大每』 11. 1 『大每』 11. 7
48	위암장선생	20C전후	桃源憶故人曲寄	1	『시사총보』
49	柳周普의 妻	1907	龍門歌	1	필사본
50	泣花垠	1907	前庭花	1	夜雷 5호
51	의성 金氏	1910	조손별서가 遊山日錄	2	필사본 權寧徹所藏本

52	李海生	1909	觀世有感 時物之變	2	『大每』 2. 23 『大每』 2. 13
53	長歌生	1906	十二能歌	1	『大每』 6. 7
54	長白散人	1909	救世聽演	1	『大每』 6. 9
55	長史生	1910	社會燈	1	『大每』 2. 2
56	長吁生	1906	五噫歌	1	『大每』 11. 17
57	將泉生	1910	國文歌	1	『大每』 4. 5
58	鄭處士	1892	述懷歌	1	필사본
59	제국신문사장	1906	여학도애국가	1	『제국신문』 8. 1
60	竹養少年	1910	社會燈	1	『大每』 2. 12
61	竹垣生	1909	聽鳥有感	1	『大每』 6. 10
62	至樂生	1910	我的樂	1	『大每』 4. 12
63	智啞生	1908	心腸難變 藻眼一舉	2	『大每』 3. 19 『大每』 3. 26
64	知眞生	1907	順天嘉	1	『大每』 9. 4
65	眞寶李氏	20C전후	哀戀歌	1	『隱村內房歌辭集』
66	滄槎散人	1902	哭艸庭子	1	『황성신문』 6. 21
67	聽世子	1909	閭巷記聞	1	『大每』 3. 6
68	祝賀生	1910	第一筆	1	『大每』 1. 1
69	啄玉子	1908	旅窓十興 十興歌	2	『大每』 11. 28 『大每』 441호
70	探春生	1910	終南行	1	『大每』 3. 20
71	破惑生	1909	聽演復演	1	『大每』 2. 27
72	洪氏夫人	1896	洪氏婦人戒女詞	1	필사본
73	활치도인	1899	近夜春雨	1	『시사총보』 2. 28
74	벽악산인 (白岳山人)	1908	街童謳歌 孟浪設 屏門酬酌의2 밍랑한일	4	『大每』 2. 13 『大每』 2. 9 『大每』 2. 27 『大每』 203호

75	혁동야인	1905	실화봉격탄이라	1	『大每』 10. 26
76	경무학도들	1896	미상	1	『독립신문』 7. 18
77	光華學校學徒公作	1906	頌歌文	1	『大每』 12. 15
78	대조선 달성 회당예수 교 인등	1896	애국가	1	『독립신문』 7. 23
79	북간도 대교동 교향학 교 학도	1909	內地測量歌	1	『경향신문』 9. 24
80	송천스립 학교학원들	1896	익민가	1	『독립신문』 8. 18
81	永化學校生徒公作	1906	閔忠正血竹歌	1	『大每』 8. 3
82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학도들	1897	찬미가	1	『조선회보』 3. 31
83	平壤女生徒	1906	袞弔歌	1	『大每』 6. 5
합 계				109	

위 표는 국내 신문·잡지에 실린 무명씨를 정리한 것이다. 총 작자는 83명이고 해당 작품 수는 109수이며 전체 1443수의 8%를 차지한다. 작가별로는 북악산인과 백악산인 그리고 우시싱이 4수씩 나타나고 있으며 출처별로는 『大韓每日申報』에 83수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또한 수록 연도로는 1909년에 36수로 가장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국내 신문·잡지 및 기타 문헌자료에 실린 작자의 특징을 보면 첫째, 학생 작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15)</sup> 학생 작자는 37명이며 작품 수는 58수이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학생은 ‘우시싱’으로 4편이며 대부분 『大韓每日申報』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 둘째, 공동작이 다수 보인다. 예를 들어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송천스립학교학원들’, ‘光華學校學徒公作’, ‘평양여생도’ 등 남학생도는 물론 여생도들까지 개화기 가사 창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필명이나 아명의 학생 작품을 유학생의 작품으로만 단정하여 논의하였으나 위의 사실을

15) 이를 학생 작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명이나 필명 표기에 ‘生’이나 ‘學徒’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면, 국내 학생들도 가사 창작에 참여 하였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인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신문』에 실려 있는 4편의 작자가 ‘괴일 목사’, ‘성진구목사’ ‘민목스’ 등이 있다. 넷째, 지식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유학자(儒學者)로는 ‘호논미춤당’이나 ‘위암장선생’, 언론인으로는 ‘제국신문사장’, 관료로는 ‘양성군수’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산인’, ‘~거사’, ‘~야인’ 등도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다섯째는 구녀 계층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洪氏夫人’, ‘柳周普의 妻’, ‘의성金氏’, ‘眞寶李氏’, ‘평양목사 로불씨의 부인’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작품 수만 해도 50여 편에 이른다.

다음은 국외 신문·잡지에 실린 무명씨의 작가와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국외 신문·잡지 무명씨 작자 일람

번호	표기명	연대	작품명	작품수	출전
1	大夢崔	1908	그의 손	716)	『大韓學會月報』
2	于岡生	1908	아해들노래	1	『大韓學會月報』
3	大笑李	1908	詩歌一曲和送大夢崔歸鄉	1	『大韓學會月報』
4	大視生	1909	警世丸	1	『공립신보』
5	大視生	1909	警世丸	1	『공립신보』
6	JSR生	1907	弄筆一談	1	『공립신보』 5. 10
8	鐵脚生	1909	孤客吟病	417)	『신한민보』
9	Funny.A. B 生	1907	十可憐	1	『태극학보』 제13호 9. 24
10	友古崔	1908	詩歌	1	『大韓學會月報』
11	雲外然客	1909	嗚呼라有志者여	1	『신한민보』
12	碧眉山人	1908	又	1	『大韓學會 月報』
13	던씨	1908	던씨애국가	1	『공립신보』 4. 1
14	안씨	1908	안씨단심가	1	『공립신보』 3. 11
15	貞齊	1909	歌謠	1	『신한민보』

16	티벽山人	1909	大卒業生會야 別芙蓉峰	1	『대한홍학보』 제5호 7. 20
17	호논미죽당	1908	성삼문	1	『공립신보』 8. 26.
합 계				25	

위 표는 국외 신문·잡지에 실린 무명씨를 정리한 것이다. 총 17명의 작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품 수는 25수로 전체 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작자는 ‘大夢崔’로 7편이며 그 다음으로 ‘鐵脚生’이 4수를 남기고 있다.

발행 연도로는 1908년 14수, 1909년 11수 순이다. 출처별로는 『大韓學會 月報』 11수, 『신한민보』와 『공립신보』에 각 6수가 실려 있으며, 그 외 『태극학보』와 『대한홍학보』에 한 수씩 실려 있다.

국외 신문·잡지에 실린 작자층은 지식인 계층이거나 유학생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출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작품의 내용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바라본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우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화기 가사는 전체 작품 중 30%정도의 유명씨를 비롯한 다양한 작자가 있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작자들은 자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 3. 개화기 가사의 작자 유형

전 장에서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有名氏와 無名氏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자층은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상의 특징 또는 신분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크게 ‘지식인 계층’, ‘종교 계층’, ‘학생 계층’, ‘규녀 계층’으로 대별하였다. 하지만

16) <나는가오>·<다유의 신에게>·<막은물>·<모르네나는>·<백성의 노래>·<생각한대로>.

17) <괴성의 노래>·<德國國民歌><青年回心曲>.

이러한 유형분류에도 맹점은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이나 학생도 접근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지식인 계층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유명씨와 작자의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유형화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작자층을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작자와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제1유형 : 지식인 계층

개화기는 역사적으로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화기적 성격을 띤다. 문학의 담당층에 있어서도 전통적 지식인 계층과 근대의식의 유입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지식인 계층의 혼효를 보인다. 전자가 전통과 봉건의식을 앞세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지하려는 보수 계층이라면 후자는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수용한 개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내용이나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은 분명 신규 지식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을 아울러 ‘지식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면 ‘관료계층’, ‘언론인 계층’, ‘의병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관료 계층이다. 이 계층은 지식인이면서 관직에 나아간 인물들을 의미한다.

- (1) ① 어주를타고 도원가려 흐얏더니 춘래편시도화수라 불변선원하쳐심고  
갈곳업는 이신세야 입산락발호고 넘불이나흐다가 극락세계차져갈지어다
- ② 을미(乙未) 유세하(惟歲夏)에 공사(公使)를 파송(派送)하여  
일본국(日本國)에 주차(駐紮)할 새 학부협판(學部協辦) 고영희(高永喜)로
- ③ 을미(乙未) 유세하(惟歲夏)에 공사(公使)를 파송(派送)하여  
일본국(日本國)에 주차(駐紮)할 새 학부협판(學部協辦) 고영희(高永喜)로

(1)은 국내의 관료작품의 일부이다. (1)①은 『대한매일신보』<sup>18)</sup>에 발표된 李觀榮

18)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6일.

의 <入山落髮歌>이다. 이관영은 당시 渭原郡守를 지낸 인물이다. 渭原郡은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지역으로 자강도 중서부 압록강 연안에 있는 군이다. 작품의 내용은 당시 답답한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신세에 빚대어 담아내고 있는데 관료로서의 국가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물씬 풍긴다. 이 외에도 실명은 없고 ‘양성군수’라고 관직만 표기된 작품이 한 편 더 있다.<sup>19)</sup> (1)②는 『독립신문』<sup>20)</sup>에 발표된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이다. 작품의 내용은 개화와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 작자의 관직은 학부의 행정업무를 主張하는 주사이다.<sup>21)</sup> (1)③은 <大日本遊覽歌><sup>22)</sup>로 작자는 이태직이다. 이 작품은 그가 1895년 6월 30일부터 1896년 4월 25일까지 일본에서 외교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일본 여행을 하며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작품이다. 외교관이라는 국외 관료로서 이미 개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문물과 서양제도에 대하여 예찬하고 우리도 하루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를 이루자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김한홍의 <西遊歌><sup>23)</sup>도 영사관 협회부 서기로 지내면서 경험한 하와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관료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언론인 계층이다. 개화기에는 다양한 인쇄물의 발달로 신지식인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신문·잡지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인쇄매체를 주관하는 편집장이나 기자들을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신문·잡지의 편집뿐만 아니라 신문·잡지의 고정란에 가사를 꾸준히 실었다. 그러나 대부분 작자미상으로 발표하였으며 작자를 밝힌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大韓每日申報』의 편집장이었던 申采浩와 『협성회회보』의 이승만 그리고 실명은 없이 ‘제국신문사장’이라고만 표기된 것을 들 수 있다.

- (2) ① 혼이歸來 혼이歸來 國民大韓 兩報혼아 今日에도 不歸하며 明日에도 不歸하야  
明日來日 지내다가 波旬撒但 魔鬼獄에 一去하면 不復來니

19) <권농가(勸農歌)>(『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4일)

20) 『독립신문』 1896년 5월 9일.

21) 그 외에도 학부 주사 최병헌이 『독립신문』 1896년 10월 3일에 발표한 <독립가>가 있다.

22) 최강현, 『조선 외교관이 본 명치시대 일본』, 신성출판사, 1999.

23) 필사본 『海遊歌』

② 가이업다 십여세를 헛되이 지니더니 민충정공 혈죽가를 눈물석거 불너보니  
아모리 소소 녀성인들 만다드라 슈각

(2)①은 『大韓每日申報』<sup>24)</sup>에 발표된 신채호의 <招魂歌>이다. 작품은 잃어버린 국민혼을 다시 불러 자주독립을 이루자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2)②는 『제국신문』<sup>25)</sup>에 발표된 당시 제국신문 사장의 <여학도애국가>로서 이는 민영환의 충절을 회고하며 읊은 가사이다. 작품은 제국신문 사장이 충정공의 군을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열 개의 절로 나누어 쓴 노래이다. 특히 충정공이 갈충보국하여 생명을 버렸으나 오히려 명절은 영원토록 남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도 학문을 열심히 하여 후일을 기약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끝으로 의병계층을 들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의 침략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자 각 지방의 유생이나 지식인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의병 계층은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았으며 작품의 내용 또한 우국이나 친일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 간의 논의에서는 의병 계층을 따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으나 본 논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명씨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사대부가의 지식인이면서 의병가사를 쓴 작자를 지식인 계층에 포함하였다.

(3) ① 너희도스람이지 秉彞之性업슬쇼냐 秉彞之性잇것마는 義兵치기고이하다  
視우仇讎相克되어 殺如草芥셔로하니 비흐면흔집안의 兄弟쓰흠이아니나

② 어와八域同胞덜아 니말잠간들으시오 三角山늬파잇고 漢江水흘너던데  
瑞雲이玲瓏하니 萬千年王都로다 조홀시고조홀시고 衣冠文物조홀시고

(3)①은 『畏堂先生三世錄』에 실려 있는 유홍석<sup>26)</sup>의 <論秉彞則同而向背之異>이다. 작품의 내용은 정부군의 행태를 질책하고 있다. 그는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24) 『大韓每日申報』 12월 17일.

25) 『제국신문』 1906년 8월 1일.

26) 유홍석(柳弘錫 1841~1913) 호 외당(畏堂) 본명 효백(孝伯) 별칭 이명 홍석(鴻錫)이며 강원도 춘천(春川) 출생이다. 조선 말기 대표적인 의병장.

유학을 배운 사대부가의 지식인으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을 일으켰다. 또한 의병들이 관군의 해산책에 회유되어 일탈자가 속출하자 <告兵丁歌>를 지어 애국심을 북돋아 주었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23편의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의병가사 작가라 할 수 있다. ②는 『관동창의록』<sup>27)</sup>에 실려 있는 민영호의 <回心歌>이다. 작품의 내용은 의병을 일으켜 國恩을 갚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에는 지식인들이 당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꾸준히 가사를 창작·발표하였다.

## 2) 제2유형 : 종교인 계층

개화기에는 혼란한 시대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신생종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는 최제우가 창교한 동학을 비롯하여 증산도·대종교·원불교 등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종교로는 기독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신흥종교들은 자신의 교세확장은 물론 포교의 목적으로 다수의 가사작품을 창작·발표하였다. 한편 기존 종교인 유교나 불교도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사를 창작·발표하였다. 이를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생 종교인 계층을 들 수 있다. 개화기 신생 종교는 동학, 원불교, 증산도, 대종교 등이 창교하였으나 논의에 포함할 수 있는 가사 작품과 관련된 것은 동학과 원불교뿐이다. 동학은 최제우가 서학에 대처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도덕관을 바로 세우고 국권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道)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세제민(救世濟民)의 큰 뜻을 품고 1860년에 창건한 종교이다. 원불교는 少太山에서 박중빈(朴重彬)이 창시한 한국의 신 불교로 일원상의 진리와 함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를 추구하며 창교되었다.

(4) ① 御化世上 사롭달아 台乃노리 드러보소 만코만은 世上사롭 一天之下 생김몸이

27) 필사본 『관동창의록』

五行理致 一般일네 사람마도 五行理致 갖건마는 웃지그리 못씨닷고 더와갓치

- ② 전반세계 이가운데 나열하는 우리동포 국방지방 다버리고 도덕으로 힘을써서 역력히 밝혀내어 산과같이 높게하면 군군면면 통하리라 국방현문 돌아가고

(4)①은 동학가사로 김주희(金周熙, 1860~1944)가 쓴 <信心誠敬歌><sup>28)</sup>의 일부이다. 작품의 내용은 성경신을 잘 지켜서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 권고하는 포교가사이다. 그는 이 외에도 몇 편의 작품<sup>29)</sup>을 더 남겼는데 대부분 포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 (4)②는 원불교 가사로 활자본 『대종사가사집』에 실려 있는 박중빈의 <甌盤世界歌>이다. 작품의 내용은 선천시대의 분할주의를 버리고 후천개벽의 통합주의로 나아가자고 역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래 종교인 계층을 들 수 있다. 외래 종교는 개화기 서구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들어 온 종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들 수 있다.

- (5) ① 예와 우리 벗님네야 성당 구경 가사이다 성당은 어디런고 천주 계신 곳이로다  
하늘 성당 보람이면 천주 대전 성당이오 천하 만국 돌아보면 천주 영광  
곳곳이라  
우리 사람 영성체는 마음 위의 성당이오 거룩함도 거룩하다
- ② 구십구양은우리에잇스되 혼양이실로호고 만텃산중에위험혼종적을 누워서  
보호호리  
못느니쥬여구십구잇스면 넉넉지못호릿가 아니라나의귀혼양차즈러 험히도  
가겠노라
- ③ 독립공원국계짓고 태극기를놉피달세 상하만민동심호야 문명례의일위보세  
전국인민집히스랑 부강세계쥬야빌세 압뒤집이인심료량 급히급히합심호세

(5)①은 천주가사로 홍방지거가 1903년에 쓴 <聖堂歌><sup>30)</sup>이다. 작품의 내용은

28) 목판본 『용담유사(龍潭遺辭)』 권지오(卷之五)(상주 동학본부 간행).

29) <슈시경세가> · <권선치덕가> · <쥬본슈덕가> · <지분슈련가> · <몽각명심가>.

30) 『홍 방지거의 歌帖』

명동 대성당의 축성식을 보고 감격의 기쁨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5)②는 기독교 가사로 ‘그일 목사’가 1901년에 쓴 <싱기선상><sup>31)</sup>이다. 작품은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자는 포교적인 노래이다. (5)③은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가>로 작자는 ‘대조선 달성 회당 예수교 인등’으로 표기되었다. 즉 개인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창작하여 함께 부른 노래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종교가사의 작자로 유명한 김시릴노, 김요셉, 유요왕 등이 있으며 목사라고 표기된 ‘그일 목사’, ‘성진구목스’, ‘민목스’ 등이 있다.

끝으로 기존 종교인 계층을 들 수 있다. 개화기 이전부터 조선사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종교는 유교와 불교이다. 불교는 고대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의 정치 이념이었으며 이후 조선이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유교가 민중의 정신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두 종교계는 혼란한 개화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대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교리를 펴기 위하여 다수의 포교가사를 발표하게 된다.

(6) ① 오호라실푸도다 스성이고히로다 텃상에나느스람 의식이즈연하야  
던복이다흐으면 삼도론희못면하니 인간에전륜왕은 일천티즈시위하고

② 明明한 日月庵에 主人翁이 괴아나냐 伏羲氏의 지은배로 太平洋에 높이던져  
茫茫宇內 바라보니 英雄豪傑 몇몇인고 莘野雲에 가는農夫 成湯이 맞아가고

(6)①은 불교가사인 <권왕가><sup>32)</sup>로 작자는 동화축전(東化竺典)의 작품이다. 창작 년대는 작품의 말미에 기록된 ‘정희 정월 이십삼일’을 통해 1908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극락세계에 들어가자고 포교하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한자가 전혀 쓰이지 않고 순 한글로 표기되었다. 이 외에도 불교가사는 대부분이 佛名을 쓰고 있다.<sup>33)</sup> (6)②는 유교가사로 명암 이선생이 1908년에 쓴

31) 『그리스도신문』 1901년 6월 20일.

32) 이정옥, 『영남배방가사』, 국학자료원, 2007.

33) 그 외 불교가사의 작자와 작품수로는 鏡虛惺牛(3수), 滿空月面(2수), 龍城震鍾(4수), 鶴鳴啓宗(5수) 등이 있다.

<吾道歌(오도가)><sup>34)</sup>이다. 작품의 내용은 유학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권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교, 도교, 기독교가 모두 부질없는 것이므로 올바른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여 바른 길을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유학을 통해 극복하고자 권고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그 외 유교가사의 작자로는 李晋用·李泰一·李建昇·李雨 등이 있다.

이처럼 개화기 종교인들을 가사의 작자층의 하나로 따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이들에 의해 많은 작품의 가사가 창작·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제3유형 : 학생 계층

1870년대 외국과 수교를 하면서 근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다는 점인데, 1886년 정부가 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세운 육영공원과 미국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 및 이화학당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 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근대식 학교는 지속적으로 설립되었다.<sup>35)</sup> 또한 선진 외래문물을 도입하고 신학문과 신지식을 수학하기 위하여 많은 해외 시찰과 유학(留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화기 근대식 학교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학생 계층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본의 침탈을 막기 위하여 신문·잡지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가사를 창작·발표하게 된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유학생(留學生) 계층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신문·잡지나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도 가사 창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계층은 국내·외 학생 계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국내 학생 계층이다. 이 유형은 국내 학생들이 가사를 창작하여 발표한 것을 말한다.

34) 이동영, 「이명암의 가사」, 『도남학보』 2, 도남학회, 1997.

35) 갑오개혁 이후 세워진 학교로는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상공학교·법관양성소·광무학교·육군유년학당·전무학당 등이 있다.

- (7) ① 대조선국학도들이 독립가들들어보오 어셔빚비독립혀세 이째를일치말고  
 덩부를보호호후후 전국인민교육식혀 합심두즈니지면은 세계상에쓸디업네
- ② 광활헌턴디간의 우리인성삼겨나서 조선국에성장혀여 의지식지혀여시니  
 부모은혜망극헌중 님금은혜더옥크다 삼각산째는괴운 조선왕기장홀시고

(7)①은 『독립신문』<sup>36)</sup>에 실린 작품으로 작자가 ‘비지 학당 학도 최영구’인 <애국 독립가>이다. 이 작품은 중주권을 주장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된 벽찬 감격을 읊고 있다. (7)②도 『독립신문』<sup>37)</sup>에 실린 작품으로 ‘평양 학당 김종섭’이 지은 <익국가>이다. 작품의 내용은 부국강병을 염원하고 임금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국내 신문·잡지에 ‘~生’으로 표기된 작자<sup>38)</sup>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학생 계층이라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국외 학생 계층이다. 이를 유학생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층은 대부분 외국에서 발간된 신문·잡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국외 신문·잡지는 『大韓學會月報』·『대한자강회월보』·『대한홍학보』·『공립신보』·『신한민보』 등이 있다. 이러한 국외 신문·잡지에 수록된 것은 출처로만 본다면 유학생 계층이 확실하다 하겠다.

- (8) ① 년전평화회후에일아전정이다기허더니이번평화회후에하쳐강산에  
 전국을깡성홀느는지동반도에서국권찾기전에는세계평화가어려울셀
- ② 可憐故國三千里에 四面八方大砲聲이라 可憐貴公子는 至今이야大夢醒가  
 可憐秋夜採蓮女는 隔江猶唱아르랑이라 可憐시골農事군은 上坪下坪愁心  
 歌 | 라
- ③ 나는가오나는가오 다시보자대한강산 영웅에비허리가오 슬픈사정먹음엇네  
 지금가면언제오는 너가다시도라올썩 우지마오동포들으 그대들이노리허리

36) 『독립신문』1896년 9월 8일

37) 『독립신문』1896년 9월 5일

38) 『大韓每日申報』에는 ‘~生’으로 표기된 작자가 38명이고 50수가 된다.

(8)①은 『공립신보』<sup>39)</sup>에 실린 작품으로 작자는 ‘JSR生’으로 표기된 <弄筆一談>이다. 이 작품은 우승열패 경쟁시대에 남을 믿지 말고 자력으로 독립을 이루자는 노래이다. 『공립신보』는 1905년 11월 22일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이다. (8)②는 『태극학보』<sup>40)</sup>에 실린 작품으로 작자는 ‘Funny. A.B 生’으로 표기된 <十可憐>이다. 구체적인 실명을 알 수 없지만 『태극학보』가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술지임을 감안한다면 작자는 일본 유학생임이 틀림없다. (8)③은 『신한민보』<sup>41)</sup>에 실린 작품으로 작자는 ‘鐵脚生’으로 표기된 <靑年回心曲>이다. 이 작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노래이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0일 미국에서 재미교포 단체가 창간한 신문이다. 이러한 국외 신문·잡지를 통해 발표된 아명의 작자층은 학생계층이며 유학생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학생 공동 작자 계층을 들 수 있다.

(9) ① 우리동국사름들아 이민가를드러보오 텃부지되동포되어 호성지덕일반이라  
나라에 부강지업 빅성으로말미암고 나라에독립지권 빅성으로힘닙느니

② 원말인가원말인가 桑港被災원말인가 가이업다가이업다 生命財産가이업다  
四海之內皆兄弟니 東西洋을區別홀가 西雲이慘恢호고 海天이漠漠호디

(9)①은 『독립신문』<sup>42)</sup>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작자는 ‘송천 스텝 학교 학원들’이 지은 <인민가>이다. 작품의 내용은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기원하며 또한 구사상과 구제도를 비판하는 노래이다. (9)②는 『大韓每日申報』<sup>43)</sup>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平壤 女生徒’가 지은 <袞弔歌>이다. 작품은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때 무사히 유학생이 돌아오길 기원하는 노래이다. 그 외에도 ‘光華學校學徒公作’·‘永化學校生徒公作’·‘경무학도들’·‘이화학당 학도들과 배재학당 학도들’ 등은 국내에서

39) 『공립신보』 1907년 5월 10일.

40) 『태극학보』 1907년 9월 24일.

41) 『신한민보』 1909년 9월 28일.

42) 『독립신문』 1896년 8월 18일.

43)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5일.

설립된 학교의 학생들의 공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화기 가사의 학생 계층은 국내·외 학생계층과 학생 공동 작자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제4유형 : 규녀 계층

규녀 계층은 조선후기 가사의 작자층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 가사에서는 이러한 규녀 계층에 대한 논의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개화기 가사의 작자를 살펴보면 조선후기 규녀 계층의 맥을 잇는 작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에 규녀를 하나의 계층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10) ① 조선반도 삼천리에 가려강산 명승디가 김희음이 웃듬일세  
지나국의 금릉부이 이와서로 방불키로 금릉이라 칭함이라

② 남의업손 즈식처로 금옥갓치 고히갈너 귀문의 입승흔후 서량의 맑은풍치  
원앙의 뺨을지어 오락가락 흐는거동 앙망심똥 흐엿더니

(10)①은 최송설당<sup>44)</sup>이 쓴 <金海懷古><sup>45)</sup>이다. 작품의 내용은 명승지를 유람하며 느낀 감흥을 읊고 있다. 이 외에도 『松雪堂文集』에는 48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자연이나 인생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10)②는 홍씨 부인이 1896년에 쓴 <洪氏婦人戒女詞><sup>46)</sup>이다. 작품은 딸을 시집보내는 염려스러운 심정과 이별의 상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전통적인 계녀가류의 맥을 잇고 있다. 이 외에도 규녀의 작품은 여러 편이 확인 된다.<sup>47)</sup>

44) 1855년~1939년. 육영사업가. 본관은 화순(和順). 본명은 미상이며 송설당(松雪堂)은 호이다. 경상북도 금릉 출생이다.

45) 『松雪堂文集』

46) 나정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47) 의성金氏의 <조손별서가>와 <遊山日錄>, 眞寶李氏의 <哀戀歌>, 평양목사 로불씨의 부인의 <이 찬미는 평양목스로불씨>, 柳周普의 妻 <龍門歌> 등이 있다.

#### 4. 結語

지금까지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유명씨와 무명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명을 쓴 경우이다. 개화기에 발표된 유명씨는 총 157명이고 작품 수는 209수이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인물은 최송설당이고 『대한매일신보』에 52수로 가장 많이 실려 있다. 유명씨 작가들은 지식인, 관료, 종교인, 언론인, 의병, 국내 학생, 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국내 신문·잡지에 실명을 쓰지 않은 경우이다. 작자는 83명이며 작품 수는 109수이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자는 북악산인과 백악산인 그리고 우시생이며 출처로는 『大韓每日申報』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 작가의 특징은 학생 작이 많다는 점, 공동작이 있다는 점, 종교인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식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규녀 계층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외 신문·잡지에 실명을 쓰지 않은 경우이다. 작자는 17명이며 작품 수는 25수이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자는 ‘大夢崔’로 7편이며 출처로는 『大韓學會月報』 11수가 실려 있다. 대부분 해외 신문·잡지에 실려 있는 작자층은 지식인 또는 유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화기 가사의 작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식인 계층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관료 계층, 언론인 계층, 의병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로, 종교인 계층을 들 수 있다. 종교인 계층은 토착 신생 종교인 계층으로 동학과 원불교, 외래 종교인 계층으로는 기독교 또는 천주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종교인 계층으로 유교와 불교인을 들 수 있다. 셋째로 학생 계층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계층은 국내·외 학생계층으로 나누어지고 그 외 공동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규녀 계층을 들 수 있다. 전통적 사대부가의 여성들의 가사 작품이 꾸준히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구명해 보았다. 그러나 작자미상이나 실명으로 표기되지 않은 작자층에 대한 연구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개화기 가사의 작자층을 확인해

본 것은 나름의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은해, 「개화기가사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79.
- 김영철, 『한국근대시론고』, 형성출판사, 1989.
- 김학동, 「개화기의 가사」,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나정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남재희,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의 현실인식」, 영남대 석사논문, 2000.
- 文聖淑, 「開化期の文學擔當階層」, 『국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회, 1985.
- 박을수, 『한국개화기저항시가연구』, 성문각, 1985.
- 서 별, 「애국가집-〈독립신문〉, 개화가사」, 『현대시학』 88, 현대시학사, 1976.
- 신지연 외, 개화기 가사 자료의 현황과 의미」, 『어문연구』 64집, 어문연구학회, 2010.
- 柳年錫, 「開化後期 歌辭文學 考察」, 『論文集』 9집, 순천대, 1990.
- 유정선, 「대한매일신보 소재 가사문학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 尹相鏞, 「開化期の 詩歌 研究 : 「독립신문」 시가와 「대한매일신보」 시가를 중심으로」 서원대, 석사논문 2001.
- 이동영, 「이명암의 가사」, 『도남학보』 2, 도남학회, 1997.
- 이정옥, 『영남배방가사』, 국학자료원, 2007.
- 장성남, 大韓每日申報 詩歌의 存在樣相과 主題表出 方式, 대전대 대학원박사논문, 2004.
- 조동일, 「개화기가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 4, 계명대, 1970.
- 조현경, 「大韓每日申報 所載 歌辭 研究」, 全南大 教育碩士, 1995.
- 최강현, 『조선 외교관이 본 명치시대 일본』, 신성출판사, 1999.
- 최한선, 「개화기가사의 장르복합고」, 『목원어문학』 5,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5.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Classes Involved in Gasa Cre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Shin Jiyeon, Byun Seunggoo

Gasa, an old form of Korean verse which had appeared in the late Gorye period, continued to be created and appreciated by the public until the period of enlightenment. However, preceding studies on the subject have neglected to identify the social classes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Gasa works. Based on the records of Gasa creators' inscribed identification,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people who left their Gasa work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to distinctive social classes.

Out of 251 Gasa works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157 pieces retain their authors' names. The authors are mainly comprised of intellectuals, government officials, and religious persons.

Out of 58 Gasa works published in newspapers or magazines, 46 pieces are written under the authors' pen names or pseudonyms. Students constitute the major group of the authors, at times producing group works.

Out of the rest 99 Gasa works, the authors of 39 pieces are still identifiable. Most of the Gasa creators are religious persons, while intellectuals and high-class married women also claim the authorship of some works.

As such, the social classes of Gasa creator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are to be classified into the intellectuals, the religious persons, the students, and the high-class married women.

However, a large number of Gasa works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do

not have their authors inscribed, so that the issue of author identification solicits further studies. This study has its merit in that it has classified the social classes of the Gasa authors with reference to the objective data.

**【Key words】** : Gasa, author's social class, classification, knowledge, religion, students, high-class married women, Confucian scholars, real-name, government officials

---

---

신지연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02-729)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00 목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jshin@mokwonac.kr

---

---

변승구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임교수

(302-729)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00 목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goodfeels@hanmail.net

---

---

이 논문은 2010년 8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